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0.30원 하락한 1,220.90원에 마감

8일 달러-원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일부 지역에 대한 섣다운 완화 검토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0.30원 하락한 1,220.9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16.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코로나 낙관론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섣다운 완화 검토에 따라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210원 후반에서 박스권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장 후반부 EU의 코로나19 재정지원 합의 결렬소식에 급등하며 1,220.9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19.70 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21.07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6.00	1222.60	1216.00	1220.90	1219.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20.02	1125.44	1116.19	1122.51

금일 전망

다시 부상하는 코로나19 낙관론 ... 1,210원 중반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및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코로나 확산세 둔화에 따른 봉쇄조치 완화논의를 반영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20.90원) 대비 5.55원 하락한 1,214.8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뉴욕 및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일부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을 수 있으며 봉쇄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예상보다 사망자 수가 적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낙관론에 힘을 실었으며, 이상의 논의에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펀더멘털 우려 및 외국인 역송금 수요에 따라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13.00 ~ 1221.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45.34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55원 ↓
	■ 美 다우지수 : 23433.57, +779.71p(+3.4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2.6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5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